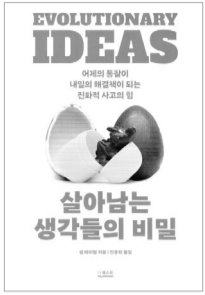


혁신은 '어제의 해결책'에서 출발한다

살아남는 생각들의 비밀

샘 테이텀 지음, 안중희 옮김



1990년 서일본철도 기술개발팀은 도쿄-오사카 구간을 운행할 신칸센 500시리즈를 개발하며 난관에 부딪혔다. 새로운 초고속열차는 이미 필요한 속도에 도달했지만 빨리 달릴수록 시끄러웠다. 가장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곳은 '팬터그래프' (궤차와 가공선을 연결하는 열차부품)였다. 더욱이 터널을 통과할 때 공기 압축과 때문에 '소음 충격파(터널 붐)'가 발생했다.

총괄관리자 나카사 에이지는 열렬한 조류 탐사자인 항공엔지니어의 강연을 듣고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다. 올빼미의 톱니모양 깃털과 아델리 펭귄의 매끈한 방추형 체형에서 영감을 얻어 '팬터그래프'를 개선해 난기류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터널 붐'을 해결하기 위해 물총새의 날카롭고 뾰족한 '짜부러진 다이아몬드형' 부리와 같은 형태를 기관차를 디자인했다. 그렇게 시속 300km로 주행하면서도 조용하고, '터널 붐'도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초고속열차 개발에 성공했다. 기술개발팀은 '무(無)가 아닌 생체모방을 통한 '생물학적 진화의 무한한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창의적 사고 덕분에' 난제를 풀 수 있었다.

마케팅에이전시 글로벌 총괄책임자인 샘 테이텀은 신간 '살아남는 생각들의 비밀' 프롤로그에서 "행동과 학과 진화심리학 분야가 오늘날의 혁신에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응용행동과학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진화적 사고를 증진하고 더 많은 혁신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크게 1부 '진화적 사고의 도구'와 2부 '생각도구 사용하기'로 책을 구성해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



물총새 부리를 생체모방해 디자인 한 일본 초고속열차 '신칸센 500시리즈'. <위키미디어 커먼즈 제공>

개한다. 혁신은 고독한 개척자나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이미 있던 생각'에 대한 변형·모방·패턴 찾기에서 이뤄진다. 저자는 신칸센 초고속열차의 '생체모방'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진화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1979년 5월 SF영화 '에일리언' (Alien)이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오래전 영화 시나리오를 팔기 위해 할리우드의 영화 프로듀서 사무실을 찾아가던 두 작가는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를 두 마디로 압축했다. '우주의 조스'.

스탈린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가 북극권 노동수용소에 갇혔던 레리히 알츠슐러의 '트리즈' (TRIZ·창의적 문제해결 이론)가 흥미롭다. 그는 "문제의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고, 해결책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고, 모순 해결은 획기적인 혁신을 창출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2부 '생각도구 사용하기'에서 신뢰강화와 의사결정 지원, 행동유발, 충성도 제고, 경험개선 등 다섯 영역에서 살아남은 해결책의 패턴을 소개한다.

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 손잡이에 손 소독제

를 설치하는 '디폴트' (Default·설정된 선택)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인간의 뇌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이다. 아이스크림 콘 바닥에 들어있는 초콜릿 덩어리는 당초 의도하지 않았으나 의외로 인기를 얻자 그대로 유지됐다. 기억의 정점과 마지막을 중시하는 '피크엔드' 제품이다. 목표에 가까울수록 충성도가 올라간다는 '목표경사 가설' 등 흥미로운 혁신의 심리학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직면한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핵심은 '진화적 사고'이다. '구글 글라스'처럼 혁신적인 생각이 늘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저자는 '진화학적 해결책'과 '기술진화적 해결책'에서 무엇을 찾는지 알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진화심리학적 해결책'이 주변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혁신 체크리스트 모음'을 붙였다. 뭔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독자라면 여기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퀘스트·2만1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뉴런의 정원=뇌를 연결하는 사슬인 '뉴런' 시점으로 인간 뇌과학의 비밀을 들여다본다. 인간 사고체계와 존재의 근간이 되는 '뉴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 많다. 가령 뉴런은 단 하나의 세포에서 1000억 개 이상이 탄생한다거나, 어떤 것은 뇌세포가 되고 아닌 것은 사멸하는지 등이다. 현대과학의 눈점 중 하나인 '통 속의 뇌'처럼 '배양접시 위의 미니 뇌'의 생육이 가능할지도 이 슈다. <위즈덤하우스·2만1000원>

▲최소한의 경제공부=주식과 대출, 여신과 외환, 채권과 부동산 등 현대사회에서 일반 직장인이라도 알아두면 좋을 지식을 소개한다. 1인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린 다주택자의 탄생과 부동산 신화, 전세 종말과 월세시대의 도래를 비롯해 이차전지의 구조와 반도체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다.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CPI, PCE, PPI를 비롯해 미국 경제의 핵심 소비층인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을 예로 금융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매일경제신문사·1만8000원>

▲용의자들=다섯 명의 용의자 중 여고생을 살해한 진범은 누굴까. 폐건물에서 사망한 고3 현유정은 그녀의 실종부터 사망까지의 행적을 추적하며 주변인물 5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추적한다. 각 장은 한수연, 민혜옥, 현강수, 김근미, 허승원 등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군



데군데 진범을 추리할 수 있는 힌트를 남겨 놓는다. 용의자 시점으로 사건을 투사하며 인물들의 알리바이에 공감하거나 의문을 품게 한다. <위즈덤하우스·1만5500원>

▲빵맛의 비밀=빵의 풍미와 기원, 베이커의 로망을 들여다 보는 빵 전문 연구서. 밀과 밀가루, 빵 반죽과 미생물을 연구한 논문 60여 편을 실어 제빵에 대한 개론서 역할을 맡는다. 르방빵에서는 쨍한 맛이, 효모빵에서는 섬세하고 촉촉한 맛이 난다. 저마다 다른 풍미가 나는 이유부터 빵과 인간의 혈당량 관계, 굽기의 3단계 등을 제시한다. 실용서적 측면에서 제빵의 과학성을 열거하기보다, 기술전결 속에서 문화적 서사도 갖추고 있다. <헬스레터·3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또비와 코나툼의 비밀=말썽쟁이들이 모여 있는 소소리 숲. 이곳에서는 까칠하고 예민한 쇠딱따구리 쏘와 낮잠을 자고 먹기 좋아하는 수달 짜루, 고공포증을 겪는 하늘다람쥐 또비 등이 함께 살아간다. 동물들은 전설 속 약속의 퍼즐 '코나툼'을 찾아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 노력 중이다. 바위산을 넘고 정글을 건너는 모험기가 담겨 있다. <파란자전거·1만3900원>

▲판다 바우에게 가족이 생겼어요=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직접 쓰고 그린 책. 대나무를 즐겨 먹지만 가끔 계란이 들어간 빵을 간식으로 먹는 판다 '바우'는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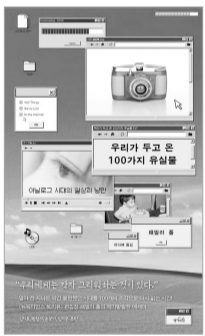
을 만들다가 계란이 갈라지는 것을 본다. 그 속에서 병아리 두 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바우는 당황한다. 병아리 두 마리에게 '검정'과 '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점차 가족이 되어간다. <그레가숨쉬는도서관·1만2000원>

▲초등수학, 개념을 그리자2=초등학생들을 위해 분수와 소수의 연산을 다뤘다. 그림과 도식을 통해 수학의 어려운 개념을 '이미지'로 인식하게 해 기억을 돕는다. '분수'를 만나면서 학생들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분수의 덧셈과 뺄셈부터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연산 등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 <보리·1만5000원>

약간 불편하고 소중했던 시대 낭만으로 다시 읽기

우리가 두고 온 100가지 유실물

패멀라 폴 지음, 이다혜 옮김



책을 펼쳐 차례에 나오는 100가지 항목을 천천히 살펴봤다. 인터넷의 출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사라져간 것들에 대한 목록이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지루함'. 맞는 말이다.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덕분에 언제든 지루함을 지워줄 새가 없다. 이제 '당 빈 시간은 존재하지 않음'뿐더러 그런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황당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스 북리뷰' 편집자 패멀라 폴의 '우리가 두고 온 100가지 유실물'은 "사들려 오느라 두고 온 과거

로부터의 추억을 기억하며 현재를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책"이다.

물론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내는 일이 저자의 말처럼 "순진한 낭만주의, 한심한 향수 또는 낡은 끈대의 그것으로 받아들여질 지 몰라"도 결국 "우리에게 중요했던 사물과 개념과 습관과 이상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서 한번쯤 새겨볼 만한 것"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100가지 유실물은 다양하다. 언제부터인가 휴대폰을 들여다 보느라 '취침 전 독서'는 사라졌고 전화, 종이신문, 접수원, 지도, 손으로 쓴 편지, 영화관, LP 판 등도 우리에게서 멀어져갔다.

'겸손'은 어떤가. '누군가의 승리가 누군가의 암묵적 실패가 되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증폭되는 자기 과시, 승자독식이 판치고 결국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보여 준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점을 강조하고 과장된 모습이 만무할 수밖에 없다.

'인기 없는 의견'에 관한 글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다. 오늘날처럼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서 목소리를 낼 때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듣는 사람 모두가 나와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 때만 말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정해진 여러 통 중 하나에 들어가야"한다. 사랑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는 '진흙탕에 빠지는 발인'을 할 사람은 감히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긍정적인 무관심, 개인적 모욕감, 혼자 여행, 당신의 집중력, 타인 무시하기, 독립적으로 작업하기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저자는 "가까운 과거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먼지가 되어 묻혀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기억을 기록하고 기뻐하며 감탄하거나 애도하거나 축하하자. 우리의 집단적 추억을 떠올리자. 그 기억 역시 곧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생각의 힘·1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